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사업명	한반도 평화학: 담론의 정착과 실천의 동학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김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사업기간	2019.4.1.~2020.2.28	사업비	
<p>1. 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종식을 연구하는 기존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고화를 위한 대안적인 제3의 길을 분단폭력의 종식과 이를 위한 ‘평화학’에서 찾고자 함. - 이른바 ‘한반도 평화학’이라는 대주제 하에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분단폭력’의 다층적 수위를 7대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학문적 기초를 다짐. - 한반도 평화학을 통해 한국 학계에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평화학의 이론적 담론을 정착시키고 정책적 실천을 구상하는 긴 호흡의 평화학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p>2. 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학연구는 평화사상, 비판적 비핵화론, 사회폭력 부조화, 군축론, 갈등관리론, 국제개발과 평화구축, 평화교류협력의 세부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진행됨 - 평화학에 대한 분과별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집담회 개최 - 연구진의 연구성과를 스웨덴 SIPRI에서 워크숍을 통해 검토하고 평화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소인 SIPRI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 평화학의 국내외 전문가 특별강연 개최 <p>3. 사업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개별 분과 연구결과를 관련 저널에 논문으로 게재 - 최종결과물로 각 논문을 『한반도 평화학』이란 제목으로 단행본 출판 			

기관명 기입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한반도 평화학: 담론의 정착과 실천의 동학
- 기관명: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종식을 연구하는 기존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고화를 위한 대안적인 제3의 길을 분단폭력의 종식과 이를 위한 ‘평화학’에서 찾고자 함.
 -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결과 불신이 장기분쟁으로 구조화되고, 이를 극복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크게 주류학문과 이에 대항하는 급진적 접근으로 양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힘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 등 기성 주류학문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분단체제를 주어진 구조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보임.
 - 반면, 또 다른 주류학문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족통일을 강조하며 부상한 남북통일론은 분단정전체제를 평화가 아닌 통일로 해결하려는 낭만적인 한계를 보임.
 - 이에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와 여기서 파생되는 구조화된 분단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순히 민족통일 또는 힘의 대결이 아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다차원적 분단폭력(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중심의 평화학을 대안적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함.
 -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화구축이라는 담론과 실천을 대안적 학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 타당성과 적실성을 시험적으로 타진함.

○ 목적

- 이른바 ‘한반도 평화학’이라는 대주제 하에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분단폭력’의 다층적 수위를 7대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학문적 기초를 다짐.
 -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학의 세부 연구영역을 분단폭력의 종식과 평화구축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7대 영역으로 구성함.
 - (1) 평화사상, (2) 비판적 비핵화론, (3) 국제개발과 평화구축, (4) 군축론, (5) 사회폭력 부조화, (6) 갈등관리론, (7) 평화교류협력
 - 이는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기획안으로 연구진척에 따라 연구영역이 확대되거나 부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평화학을 통해 한국 학계에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평화학의 이론적 담론을 정착시키고 정책적 실천을 구상하는 긴 호흡의 평화학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평화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이론적으로 한국 학계에 정착시키고 실천적 함의를 한반도에 투영함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 평화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의 기초를 닦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단정전체제의 분단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와 인문, 자연과학 등 평화학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본 연구가 완료되면 더욱 긴 호흡으로 평화학의 지평을 확장할 계획임.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국내외 전문가 초청
 - 스웨덴 연사 Alec Forss "Northern Ireland Peace Under Threat?" 세미나
 - 이대훈 “탈분단 평화학 시론” 세미나 개최
- SIPRI, PRIO 등 북유럽의 평화학 연구기관 방문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19.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연사 Alec Forss "Northern Ireland Peace Under Threat?" 세미나
2019.0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대훈 “탈분단 평화학시론”
2019.10.27-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북유럽 연구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구축 • 북유럽 연구 기관들의 발전된 평화 연구를 통일평화연구원 및 한국 학계에 소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PRIO, SIPRI, ISDP, Uppsala University 등 북유럽 연구 기관 및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협의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의 평화학으로 저명한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가 주관하는 교수요원의 평화학 교육 프로그램에 임경훈 원장과 김태균 교수가 참가 (19.06)
- 한반도 평화학 북유럽 연구 출장 (19.10.27-19.11.02)
- 2019년 통일기반구축연합학술대회 (19.11.27)
- 7개의 독립된 연구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관련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후 2020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출판원에 통일평화연구원 총서로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19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통일기반구축사업 [한반도 평화학](책임: 김태균 교수) 연구의 일환으로 북유럽의 세계적인 평화연구기관인 노르웨이의 PRIO와 스웨덴의 SIPRI,

Uppsala대학교, ISDP를 방문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평화연구기관들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통일 평화연구원이 앞으로 평화학을 한국에서 발전시키는데 벤치마킹의 대상이며 향후 긴밀하게 협력할 파트너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각 기관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특히 ISDP와는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 2019년 11월 27일에 개최된 통일기반구축연합학술대회에 본 연구는 북미 간의 평화관계가 조성된 이후 한반도에 무질서하게 투입될 원조와 투자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UN이 지금까지 분쟁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하여 추진해 온 평화유지활동(PKO)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인 성공의 결정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평화조건(peace conditionality)'를 활용하여 UN이 성공적으로 평화구축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인 나미비아,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다자협력인 UN의 활동보다 분쟁지역에 역사적으로 개입과 영향력이 큰 양자공여국의 변수가 성공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작동하였다는 것을 검증한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평화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을 평화조건으로 통제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 2019년 10월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이 주최하는 Sustainability & Development Conference에 김태균 교수가 참석하여 “Investing in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In Search of Peace Conditionality and Bilateral Warranties” 발표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한반도 평화학의 정착을 위하여 핵심 7개 세부 분야에 전문가가 각각의 연구내용과 목적을 결정하고 이를 연구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최종 결과물 산출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성
 - 본래 계획했던 ‘한반도 평화학’ 단행본 출간 목표에 맞춰 각 7분의 전문가가 맡은 분야에 효과적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충분한 결과물을 산출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본 연구사업은 아직까지 한국 학계와 정책기관에 생소한 평화학(Peace Studies)를 소개하고 특히 평화학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평화학의 세부 분야인 7개 분야에서 한반도를 조망하는데 학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한반도 평화학은 단순히 1년 동안의 연구로 종료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하는 동학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동시에 연구결과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7대 영역에 투입된 연구진은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시적인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동시에 내용과 구성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가 부족하면 전체적인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생함.
- 추후에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면 회의구성을 원활하게 만들어 전체 연구진의 한반도 평화학에 대한 이해도와 집필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계획

- 본 연구결과물을 각 연구진이 희망하는 관련 학술지에 게재를 6월까지

진행하고, 2020년 6월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통일평화연구원 총서로 한반도 평화학 출판을 지원할 계획임.

□ 건의사항

- 통일기반구축사업으로 선발되어 2019년 동안 추진된 주제들은 대단히 한반도와 한국의 통일 및 평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각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통일기반구축연합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에 그치고 있음.
- 각 성과를 어떻게 외부에 홍보하고 서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함.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7개 분야의 한반도 평화학을 2020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총서시리즈의 하나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단행본으로 지원하여 2020년 하반기에 출판할 예정임.
- 단행본 출판 이전인 2020년 6월까지 각 챕터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를 관련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나, 이는 각 연구자의 결정에 맡길 계획임.

□ 성과 자율 지표

- 2020년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학: 담론의 정착과 실천의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통일평화연구원 총서로 출판할 예정
- 2020년 6월말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지원하기 전에 각 연구진이 희망자에 한해 관련 국내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할 예정(최소 3개의 논문)
- 세미나 개최 3건
 1.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초빙: “한국 평화문제의 현실과 평화학의 과제”
 2. 2019년 통일기반구축연합학술대회
 3. 한반도 평화학 발전화 방안 및 사업 신청 세미나
- 평화학 국내외 학자 및 활동가 초빙 및 특별강연 개최 2건

1. “Northern Ireland Peace Under Threat” (Alec Forss)
 2. 탈분단 평화학 시론 (이대훈)
- 연구진의 연구 성과 공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 공유
1. 연구 성과물 제출